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十 행동 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추석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며 모처럼 한 자리에서 만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 추석,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족 주심을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전도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여기에 예배모범을 제시한다.

<예 배 순 서>

목도	인도 : 가족 중 어른	다함께
성시 시편 100편 1-5절	인도자
찬송 304장(통일 404장)	다함께
기도(또는 사도신경)	가족 중(다함께)
성경봉독 눅. 12:16-21	인도자
메시지 "추수를 맞는 자의 마땅한 태도"	인도자
찬송 301장(통일 460장)	다함께
주기도	다함께

"추수를 맞는 자의 마땅한 태도"

눅. 12:16-21

16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7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공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19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올 한해도 여러 가지 기쁜 일들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열매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오늘이 있기까지 사랑으로 감싸주신 부모(혹은 조부모)님께 감사하며 추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가을에 소출이 풍성하여 창고를 확장하고 마시고 즐기며 편히 쉬리라는 계획을 이야기 합니다. 이 부자는 오늘날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재물을 모으는 능력이 있었고, 모은 재물을 잘 관리할 줄 아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을 즐기는 방법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추수의 계절 가을에 이 부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1.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자는 소출이 풍성한 것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의 결실인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시며 자연만물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망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추수의 열매들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취할 태도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부자는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에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되고 '나'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음을 인정하고(롬11:36)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겠습니까.(고전10:31)

3. 하나님의 추수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연계에도 추수 때가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마지막 결실의 날이 있습니다. 그 날에는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고후5:7).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생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갈6:8) 우리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입으로 증거하고 몸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의 그날에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추석 되도록

어려운 성도와 장애인 관련기관에 구제금 전달

추석 연휴가 금주에 시작된다. 이번 연휴기간 동안 수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향할 예정이라고 마스크에서 연일 보도하고 있다.

우리 기독교인이 명절만 되면 항상 어려움에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제사의 문제일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임을 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번 추석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시간으로 삼아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친척에게 전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고향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나 안 믿는 가족들의 양심과 전도를 위해 삼가고 기도하는 추석 연휴가 되도록 하자.

한편 우리 교회는 추석을 맞이하여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과 이웃들(주몽재활원, 나자로의 집)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쳤다. 땀 흘려 수고하여 남을 도울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추석 구제는 보람된 일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니 감사할 뿐이다.

이웃과 함께하는 2014 사랑의 바자

사랑의 온도계 모금: 1, 2, 8층 / 헌옷 모으기: 104호 / 기증물품 접수

2014 사랑의 바자(위원장 : 서문석 장로)가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다. 지난주부터 사랑나눔 A+ 캠페인이 시작되었다(사진).

사랑의 온도계 모금이 1, 2, 8층에서 이루어지고, 헌 옷 및 재활용 생활용품들이 교구를 중심으로 접수되고, 1% 나눔 및 10% 절제운동이 시행되고 있다. 각 교구의 먹거리 개발이 한창이다. 또한, 아웃도어웨어, 프렌치볼(부엌용품), 여성의류, 양말, 솔 앞액기스, 블루베리음료, 비누, 치약, 트리트먼트 등 많은 기증 물품들이 새롭게 접수되었고, 성도들의 사업장의 서비스 상품권(예, 식사권, 캠핑카 및 펜션 이



용권, 커피음료권, 이-미용실 이용권, 학원 수강권, 병원진료권 등)도 접수되고 있다. 바자본부에서는 작은 정성이라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필요

시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해 주고 있다.

‘바자자선음악회’는 9월 19일(금) 오후 8시에 2층 본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출연진이 확정되어 호흡 맞추기 연습이 한창이다. 초대권은 교구간사와 다락방장들을 통해 배부되며 주위의 VIP들을 초대하여 전도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부금은 음악회에 참석하여 자유롭게 모금함에 접수하면 된다.

제36학기 서울성경대학 · 하반기 열린프로그램

9월 14일(주일) ~ 11월 22일(토요일) (10주간)

성경 66권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통하여 말씀에 든든한 기반을 둔 신앙을 확립하고, 말씀이 왕성하여, 내적으로 복음적인 신앙을 견지하고, 외적으로는 복음전파가 힘을 얻어, 서울교회 부흥을 위한 기틀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제 36학기

서울성경대학과 하반기 열린프로그램이 9월 14일(주일) ~ 11월 22일(토요일) (10주간) 다음과 같이 열린다. 각 과목당 소정의 수강료가 있으며 성도들의 많은 참석 바란다.

강좌	요일 및 시간	담당	장소	
성경과목 (10주)	에스라	월, 오전 10:00~11:00	서명철 목사	602호
	구약의파노라마+Q.T.	토, 오전 10:30~12:00	장석남 목사	602호
성경통독반	목, 오전 10:30~12:00	황 광 목사	501호	
선교대학	월, 저녁 7:00~8:30	장석남 목사	602호	
살롬 경로대학	목, 오전 10:00~오후 1:30	서명철 목사	101호	
교사 양성반	주일, 오후 3:30~4:20	교역자 전체	606호	
교구일꾼 양성반	주일, 오후 3:30~4:20	교역자 전체	607호	
전도학교(12주)	주일, 오후 3:00~4:30	배경애 전도사	506호	

서울음악교실	주일, 오후 1:40~3:00 (9/14~11/16)	박정선 장로	601호
결혼예비학교(5주)	주일, 오후 3:30~4:30 (9/21~10/19)	서준권 목사	609호
수화교실 초급반(16주) 중급반(16주)	주일, 오후 1:00~1:50 (9/14~12/21)	임규현 목사	609호(초급) 603호(중급)
		박영준 목사	601호
영.유아 아트&하트(art and heart) 스쿨	목, 오전 10:30~12:30 (9/18~11/27)	구분혜 전도사	701호(어린이) 706호(어머니)
비블리오 바이블(Biblio Bible) 스쿨	토, 오전 10:00~12:00 (9/20~11/29)	양세라 목사	702호(어린이) 601호(어머니)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44)

(문 144) 에스겔서 28장에 있는 두로왕은 누구인가요? 그는 사탄과 관계가 있습니까?

(답) 에스겔26장과 27장에는 베니게에 있는 두로왕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26:6-11) 예언했고 주전332년에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함락될 것이 예언된 것입니다. (26:3-5, 12-14)

무역과 경제적 번영을 이루어 여러 도시들과 나라들과 교역을 한 두로가 무너지는 소리에 이웃들도 놀랄 것이라 했습니다.(26:15-21, 계 18)

두로나 바벨론 같은 상업의 중심지가 하나님 없는 물질문화의 부패와 함께 무너질 때 인간의 환상이 깨어질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두로는 마지막 심판 날에 세상이 당할 고통을 상징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28장에 있는 두로왕을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 28:2에서 두로왕은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도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이라 하셨습니다. 두로왕은 하나님의 뜻이나 영광보다 자신과 물질에 대해 더 자랑했던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는 창조주요 우주의 섭리자 되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되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목적을 두고 세상적 성공을 자랑하는 이들에게 두로는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로는 스스로 지혜가 있어 다니엘보다 은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3) 두로는 재물과 지혜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5)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 없이 그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여러 나라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고 지혜와 영화를 짓밟을 것을 말씀했습니다.(7)

두로가 사탄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겔 28장에 결정적 증거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옥의 왕을 두로의 왕으로 간접적으로 묘사한 것이 있을 뿐입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반역죄로 쫓겨나기 전과 같이 두로가 화려했으나 그 후의 비참한 모습은 비슷하다 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세상 지도자들은 사탄의 지배아래 있으니 두로와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계20:10)

(다음 주 계속)



“ 무덤 앞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자 ”

조상숭배 제도는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12세기 중국의 주희가 만든 성리학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거니와 전 세계적으로 조상을 숭배하는 민족은 아시아의 유교권 국가들과 아프리카의 몇몇 부족들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

처음엔 위대한 업적을 남긴 황제를 추념키 위해 만들었지만 나중에 평민들도 자기 조상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 가문에서 제사를 지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조상숭배는 성경적으로 보면 우상숭배요, 역사적

로 보면 중국의 유교 철학에서 온 외래문화의 유산이며, 철학적으로 보면 과거지향적인 순환적 시간관에 기인한 것이므로 자연주의적 세계관과 평민을 다스리기 위한 사회 정치적 산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복을 받는다거나 그것이 효도의 길이라는 생각을 갖고 조상의 무덤을 찾기보다는 잔치집에 가기보다 초상집 가기를 즐겨하라는 성경 말씀대로 무덤 앞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지혜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전2020운동

믿음의 천부장을 만나다



이갑진 장로 (비전2020 운동 부장)

8월 30일 청명한 초가을의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교회 22명의 일행들이 철원 3사단으로 진중세례의 길을 떠났다. 정경진 목사님의 안내로 6.25 전쟁 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철의 삼각지대 (철원-금화-평강을 잇는 삼각형 지대)의 중심에 있는 "명공 OP(관측소)"로 올라 남방한계선 끝 단에서 바로 눈앞 펼쳐진 남

북을 가로 지른 비무장지대와 그 안에서 서로를 마주 보며 대치하고 있는 아군과 북군 초소를 관측하였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근무에 임하는 밝은 모습의 장병들에게 격려와 위문을 하고, 국가의 안보와 북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한 기도를 드

렸다. 십자군 교회는 세례식을 앞두고, 교회의 1,2층을 가득 메운 250 여명의 병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뜨거운 찬양과 "할렐루야, 아멘" 소리의 열기로 온 예배당을 가득 메웠다.

그 병사들 속에서 함께 손뼉을 치며 찬양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한 장교를 보았다. 그는 연대장 김 00 대령이었다. 이 부대를 지휘하는 천부장 지휘관이다. 그는 세례식에 앞선 인사에서 병사들에게 우리가



가 짝짝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서울교회의 역사와 비전과 목표를 소개하며, 병사들을 소대 별로 세워, 참가한 우리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게 하였고, 휴가 나가면 대치동 서울교회에 한번 가보도록 권면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175명의 병사들이 세례를 받고 제자로 돌아갈 때에, 그는 곳곳이 선 채로 병사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맞잡고 밝은 미소로 진심 어린 축하를 해주었고, 따뜻한 포옹으로 가슴에 안아 주었다. 나는 군대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군에도 저런 천부장 연대장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고, 전투복 깃에 새겨진 그의 대령 계급장이 유난히도 빛나 보였다. 예



수님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칭찬하신 백부장을 생각하며, 이러한 믿음의 천부장을 키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바라기는 군의 각급부대 마다 내가 만났던 이 천부장과 같은 믿음의 심부장, 오십부장, 백부장, 천부장들이 세워져, 부하들을 몸으로, 가슴으로 사랑하며 이끌어 가는 그리스도의 군대, 대한민국의 군대로 만들어 가기를 간구한다.

2014 사랑의 바자

한 가정 한 물품 구입으로 빈약한 자 구제를



예안식 집사 (바자판매관리부)

불우이웃 및 탈북난민돕기, 동남아와 아프리카의 우물과기, 살리당 후원 및 중앙아시아 선교 지원을 목표로 이웃과 함께하는 2014 사랑의 바자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바자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다락방과 교구가 한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기쁘게 참여하므로 매년 축제 같은 바자가 잘 진행되게 하여주심에 교구장, 부교구장, 간사, 다락방장 및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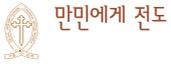
매년 이맘 때 즈이면 여러 경로를 통하여 바자 입

점신청 문의전화가 수 없이 많이 걸려옵니다. 바자 본부에서는 가급적 위탁업체를 배제하고 서울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 많은 참여를 통하여 한가위 같은 풍성한 바자, 맛있는 음식이 많은 바자, 저렴한 면서도 꼭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고 기획하여 왔습니다. 이웃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서로 나누고 즐기며 우리 예수님 사랑을 체현해 보시기를 바라며 서울교회 온 성도가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 **교회 앞 야외매장** : 과채류(사과, 포도, 밤, 고구마), 꿀, 양파즙, 매실액, 산양산삼, 더덕, 도라지, 젓갈류, 장류, 건어물류, 제주흑돼지, 제주갈치 등 수산물, 사골, 김, 한과, 견과류, 부각, 화분, 국수 등

- **한티공원** : 생과일주스, 호떡, 신발, 숙녀의류
- **1층로비** : 르본화장품, 영원무역의류, LED 등, 치약 칫솔, 건강기능식품, 이불, 가방, 벨트, 선글라스, 머그잔세트, 타올, 비누, 액세서리 등등
- **2층** : 헌옷 등 기증의류 및 속옷
- **7층** : 유아부(유아용품), 호산나(중고의류), 숙녀정장류(까프리네트, 모피, 골프복 등)
- **8층** : 부추전, 호박죽, 왕만두, 순대, 떡볶이, 우동, 샐러드바, 아이스크림, 식혜, 팝콘, 샌드위치, 또띠아, 우거지탕
- **9층** : 차와 음료, 쿠키
- **기타** : 펜션속박권, 카라반이용권, 채근담식사티켓 등





복음의 씨앗들이 잘 자라길...



백승경 집사
(방글라데시 기도팀장)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방글라데시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어, 수년 전부터 방글라데시 조남혜 선교사 기도팀에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팀장의 책임을 맡겨 주셔서 방글라데시의 복음화에 대한 열망이 더욱 간절 한 가운데 이번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고3 아들과 가족들, 그리고 직장 일을 잠시 뒤로하고, 개인적으로 염려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채 선교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선교지에 도착한 이후 3일 동안 얼굴조차 씻지 못한 채 교회 시멘트 바닥에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음에 우리 모두는 감사했습니다. 날마다 구름떼같이 몰려드는 어린이들과 주민들에게 진료, 이미용 및 어린이 사역을 실시하였고, 태양광 발전기 설치와 매일 밤 예수영화상영 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사

랑을 다시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 깊이 느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방글라데시 기도팀에서 수년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여 이름이 익숙해져 있던 소망호스텔의 아이들과 쇼비파, 슈미 선생님, 따라 아줌마 등의 이름들을 한 명씩 부르며 반갑게 인사하는 순간 우리는 전부 만나왔던 사람들처럼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저를 보자마자 호스텔 아이들과 모든 선생님들이 서울교회와 방글라데시 기도팀을 위하여 매일같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있다며 저에게 다가와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노즈롤 선생님의 까만 눈을 보는 순간 우리는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과 차량이 뒤엉켜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도로, 사람의 존엄성이 버스나 리샤보다 낮게 평가되는 무질서한 사회, 글자도 예수님도 모르는 무지한 곳,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25년 전에 이경엽 선교사님 부부를 그 땅에 보내셨고, 수브로도 바로이 목사님,

조남혜 선교사님, 박진영 선교사님 부부를 서울교회로부터 파송하여 미리 준비케 하셨으며, 다시 열 분의 현지 선교사님들을 준비시키고 계심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스님이 회심하여 신학을 배우게 하셔서 마을의 복음화를 준비하고 계심을 스님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6명의 단기선교단원 모두가 척박한 사역지에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매일 매일 실감하면서, 의료진료 908명, 이미용 342명, 어린이 사역 229명 등 총 1,479명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건강하게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박노철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저희가 잠시나마 뿌리고 온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씨앗들이 잘 자라서 방글라데시가 우상을 버리고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9.7(주일) 원일교회에서 설교한다. 9.12(금) 국방부장관초청 병영 문화혁신에 관한 간담회에 참여한다. 9.13(토)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월례기도회, 논문발표회에 참여한다.
- 취임: 3교구17다락방 김경희 집사 서울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 학장
- 주일식당봉사 : 안드레산교회 한나전도회(9.7) 베드로산교회 에스더전도회(9.14)
- 금주의 식사 제공 : 원용규 집사 박이선 권사 가정 원강희 집사 문지원 성도 가정 (결혼을 감사하며)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모든 성도가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각종 모임 가운데 사랑의 향기와 복음의 편지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2. 1% 나눔운동, 10% 절제운동, 헌옷 모으기, 자선음악회 등 사랑의 바자의 모든 사역들이 풍성하게 이뤄져 나아가도록
3. 세계에 흩어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도록

서울 음악교실로 오세요

하나님을 기뻐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 서울음악교실이 9월 14일 개강합니다.

서울음악교실에서는 기초부터 쉽게 발성법, 호흡법, 계명창법을 배우며 음표와 윗표, 리듬과 박자 등 기초적 음악 이론 전반을 10주만에 걸쳐 공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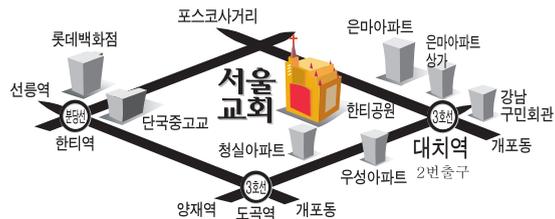
찬양대원으로 봉사하시고자 하시는 성도님 누구나 환영하며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9월14일(주), 오후1시30분, 601호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 부예배	오전 9시
	II 부예배 (영아동시영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요일예배	I 부예배	오전 11시
	II 부예배	오후 7시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당 II층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II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